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필수 계획



청력보존 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음노출평가, 소음초과 시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적 소음에 노출될 경우 혈압, 맥박, 호흡 등이 증가하게 되고 전신 근육이 긴장하게 된다. 또한 기억력 감퇴, 주의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청력이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소음 작업환경 측정 결과

85dB(A)

소음이 85dB(A)를 초과하는 사업장, 노동자에게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조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에 따르면, 소음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이 85dB(A)를 초과하는 사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추진팀을 구성하고, 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소음 측정 및 노출 평가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음 측정이다. 80dB(A) 이상의 연속음과 120dB(A) 이상의 충격음에 대해 6개월에 한 번 이상 또는 필요시 수시로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측정결과, 8시간 시간가중평균(TWA) 90dB(A) 이상 노출된 노동자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작업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청력검사 및 청력손실 관리

청력 검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작업 배치 전에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청력 손실이 확인된 노동자는 사후관리 및 보호구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청력 저하나 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한다.

예방교육 및 상담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교육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연 1회 이상 청력 손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력 손실 노동자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소음 발생 작업장에는 소음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청력 보호구 착용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소음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차음 또는 흡음 조치, 근무 시간 단축, 순환 근무 등의 조치와 청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문서보존

청력 보호구는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합한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착용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력보존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주요 문서에는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계획서, 소음노출평가 결과, 청력 검사결과 및 관리기록, 청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

